

제주, 신생아수 5000명대 무너졌다

통계청 2018년 분석… 총 4781명 출생
조출생률 7.3명… 10년전보다 2.7명 ↓

제주지역 출생아수가 크게 줄며 지난해 5000명대가 붕괴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781명(제주시 3745, 서귀포시 1036)으로 1일 평균 13명꼴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5000명을 상회한 것과는 달리 저출산의 심각성

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10년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08년 5593명, 2009년 5433명, 2010년 5657명, 2011년 5628명, 2012년 5992명, 2013년 5328명, 2014년 5526명, 2015년 5600명, 2016년 5494명, 2017년 5037명 등이다. 작년 출생아 수는 최고점인 2012년에 견주어서는 1211명 차이다.

제주의 조출생률(1000명 기준)도 2008년 10.0명(전국평균 9.4)에서 2012년 10.4(전국평균 9.6)까지 올랐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는 7.3명(전국평균 6.4)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76세(전국평균 32.80)이며 10년 전 31.15세(전국평균 30.79)보다 1.61세가 높다.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제주의 경우 1.93년(전국평균 2.16)이 소요됐다.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는 13.8

%(전국평균 8.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첫째아는 49.6%(전국평균 54.5), 둘째아는 36.6%(전국평균 36.9) 등이다.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4.5명이다.

최근 9년간 제주지역의 순유입 인구는 2010년 437명,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110명이다. 연령대는 30대·40대·20대 순으로 많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JDC, 국민(도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국민(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JDC는 앞서 지난 8월 31일까지 국민(도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 결과 25건이 접수됐고,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해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 25건 중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제안은 ▷해양환경정화 및 쓰레기

데이터 수집 ▷제주 폐자원 업사이클링 체험 ▷제주어 버스킹 ▷드론을 활용한 제주 탐사르 습지 생태 모니터링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사업 등 총 5건이다.

단순 공연·축제·행사 지원요구 사업, JDC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JDC 사업성격·범위를 벗어나는 사업, 특정업체 지원 사업 등과 관련된 총 20건은 부적격 처리됐다.

이번 JDC 2020 국민(도민) 참여예산 2단계 심사는 일반국민(도민)

온라인 투표 50%와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JDC는 국민(도민)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문대립 이사장의 신경영방침인 '다시 그리고 함께 JDC'를 바탕으로 도민 중심 소통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국민투표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건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JDC 홈페이지(<https://www.jdccenter.com>) 또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idea.epeople.go.kr>)서 진행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화창한 날씨에 천연염색 원단 말리기 파란하늘이 드러나는 화창한 날씨를 보인 16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공화 화물청사 입구 공원에서 천연염색 원단 말리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미등록 반려견 단속 돌입 도, 적발시 과태료 부과 조치

제주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반려견 등 반려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병에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은 반려견 등 반려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

시된다.

도는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7월 1일~8월 31일) 중 등록을 하지 못해 이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개소)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119 인명구조견 '초롱' 실종 치매노인 극적 구조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소방서 소속 119인명구조견 '초롱(5·라브라도 리트리버종)'이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세미오름 인근 농장에서 실종자 A(89·여)씨를 발견했다.

>> 사진

A씨의 가족들은 평소 치매가 있는 A씨가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쯤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인 15일 새벽 1시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수색에 나선 소방은 핸들러 강승철 소방장과 초롱이를 투입, 수색 2시간여만에 세미오름 인근 수풀에서 A씨



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119인명구조견은 지난 2000년 최초 배치됐으며, 지금까지 도내 수색현장에 총 324회 출동해 29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중·고생 영어듣기능력평가 시행

제주도교육청은 17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제2회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들의 영어듣기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제 출제를 위탁해 EBS교육방송을 통해 녹음·송출되며, 매해 2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영어듣기능력평가 결과는 학교별로 평가에 반영하거나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표성준기자



제주4·3유족회들은 지난 13일 UN본부 앞에서 제주4·3을 알리는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미 정부는 4·3 학살 책임 인정해야”

유족회 UN인권이사회 참석
본부앞에서 4·3 알리기 홍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4·3문제 등 한국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국제연대포럼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42차 UN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첫날인 11일에는 UN 인권이사회 공식 세션으로 진행된 UN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 발표에 이어 백가운 제주다크투어 대표가 공식 발언을 통해 제주4·3과 한국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백 대표는 “2000년이 돼서야 국가

차원의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의 배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열린 ‘제주4·3과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4·3학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일어났지만,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고 있었다”며 “미국 정부는 4·3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통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지막 날인 13일 유족회 등은 UN본부 앞 광장에서 거리 집회를 열고 4·3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와 함께 4·3을 알리는 영문 소책자와 동백꽃 배지를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도 펼쳤다.

김현석기자

대한사랑
Daehan History and Culture Association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한사랑 역사광복 전국 순회특강

대한국민인에게

大韓國民人

고함!

한국인 역사 DNA를 파괴한 일제조선총독부가 심어 놓은 식민사관의 실체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합니다.
한국의 원형 K-history로 진정한 홍익인간의 한류문화를 제시합니다.

일시 : 신시개천 5916년 단기 4352년 (2019년) 9월 22일(일) PM 2~5시
장소 : 제주 김만덕 기념관 강당
문의 : 010 - 9273 - 2935, 010 - 4821 - 6119

1부
조선총독부가 지워버린 한국사의 실체
이완영 수석본부장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 사무총장
(사)대한사랑 수석본부장

2부
K-history K-spirit K-cosmos
박석재 이사장
한국천문연구원 3,4대 원장
(사)대한사랑 이사장

[주최] (사)대한사랑 [후원]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세계환단학회 [협찬] STB상생방송